

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사업 성과 가시화









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사업의 성과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. 이를 통해 정읍 관광객 500만 시대 발판을 다져가고 있다. 는 평가다.

시는 그간 정읍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관 광자원을 주민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'관광객들이 정읍을 찾고, 하루 이상 머물러 즐길 수 있는 시설'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 중심추를 두고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해왔고, 많은 성과를 거뒀다.

▲ 내장산 리조트 조성사업'순항

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내장산리조 트 관광지 조성사업은 정읍시 신정동, 용산동에 위치한 159 만7천여㎡(48만여평)부지에 정읍시가 422억, 한국관광공사 440억, 민자 2,367억 등 총사업비 3천229억이 투입되는 사업 이다1

사업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골프장 부지 91만5547 ㎡가 지난해 7월 분양됐다. 총5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9월 중순까지 설마치고 바로 사업에 착공, 2017년 가을에 완공한 후 2018년 봄 시범라운당을 거쳐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. 클럽하우스 외에 골프텔도 들어설 예정이다.

목이다. 클립이다는 되에 클프릴로 클어질 예정이다. 또 지난해 8월 KT&G가 내장신리조트 부지 내에 내장산 숙박시설 건립공사에 착공, 2017년 내 준공할 예정이다.

이밖에 리조트 내 여관과 펜션부지, 상가 등 모두 20건의 분양계약이 이뤄지면서 분양대상 면적 대비 85%의 분양율 을 보이고 있다.

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속적인 투자자 발굴을 통해 호텔, 콘도 등 중대형부지 민자유치 추진에 전력을 다할 예 정이다.

관광공사와 함께 3300억 투입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백제가요 정읍사 설화ㆍ새암우물 등 자원 활용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

▲ 천년의 사랑,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

지난 5월 11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은 용산동 정해마을을 중심으로 21만5808㎡(약6만5천평)의 부지에 총사업비 304억원(국비 94억, 시비 200억, 민간투자 10억)을 투입하여 정 당기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.

현존하는 최고 백제가요 정읍사의 설화와 정해마을의 관광자원인 새압우물과 부부나무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화 한 시설조성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예정이다.

특히 가요박물관은 각 나라와 시대별 사람가요에 대한 내용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요박물관으로서의 의미가 크다.

2018년 12월을 준공예정으로, 내장산리조트와 전북연구개 발특구와 연계되어 정읍을 대표하는 문화와 역사·자연 관 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▲ 국민캠핑장으로 인기, 내장산 국민여가 캠핑장

'국민캠핑장' 으로 사랑받고 있는 내장산 국민여가 캠핑장

은 지난해 8월 개장됐다.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 정됨에 따라 지원받은 국비 7억5천만원을 포함 모두 18억2 천만원을 투입해 총 25,570㎡의 부지에 총 47면의 캠핑 사 이트를 조성했다.

올해에만 현재까지 1천655팀 6천620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높다. 지난 3월에는 여름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녹음수 10,700여주를 심었고, 하반기에는 글램핑 시설 과 카라반 추가 설치 등을 통해 명품 캠핑장으로서의 면모 를 갖춰간다는 계획이다.

▲ 내장산 거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

지난해부터 5년 간 총 100여 억원을 투입해 내장산국립공 원과 내장산 문화광장, 단풍생태공원 등 주변 관광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.

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전북도 민선6기 핵심사업으로 14 개 시군의 대표관광지를 거점으로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 관광객 증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.

올해 내장산 국립공원 내 조선왕조실록보존터 탐방로 정 비사업 일환으로 용굴암 진입로 탐방 데크 설치와 일주문 ~내장사 간 황토포장 및 아치형 교량 설치사업을 추진 중 이다. 또 우화정 인근 화장실 신축공사와 함께 내장산 상가 집 단시설지구 내 관광객 쉼터 조성 및 교량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이후에도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스톤아트 및 사진 찍기 조형물 설치 등 총 6건의 관광기반사업 추진과 함께 관광 진흥사업으로 전국 캠핑페스티벌도 개최할 계획이다.

▲ 중국 위해시와의 교류 활성화

지난해 10월 정읍시와 중국 위해시는 관광분야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 이후 시는 위해시에 내장산 단풍나무를 기증했고, 갑오전쟁박물원 내에 영상시스템(TV 2대)을 설치해 동학농민혁명과 시 홍보영상을 상시 방영하고 있다.

내년 개최되는 제50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는 위해시 관계자를 초청하고, 추후 문화 및 과학산업 교류 등교류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.

▲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

덕천면 하학리 황토현전적지 일원 306,428㎡(9만2천여평) 에 총383억원의 국비를 투입, 추진하는 사업이다. 이 사업 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문체부 주관, 동학농민 혁명 기념재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2018년 완공 예정인 동학농민혁명 전시체험공간, 연수 동, 연구소, 추모관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선다. 완공되면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이념을 국외에 선양하는 중심적 공 간으로 자리매김되고, 추모 공간 및 역사 체험 산 교육장 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.

/정읍=김대환 기자

